지식경제부 보도자료	"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,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"
2012년 3월 15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-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이경식 팀장(02-2110-3861), 이경진 사무관(2110-3864)	

과감한 규제완화로 경제자유구역 활로 찾는다

- 규제완화로 외국병원 설립되면 1만명 고용효과 발생 -
- 지경부, 14일 『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현장추진단』 발족 -

□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각종 규제를 찾아 이를 없애거나 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, 그 일환으로 민관합동의 『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현장 추진단』을 발족했음

○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그간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가 잔존하고 있다고 보고,

○ 중앙정부뿐 아니라 6개 구역청, 유관기관, 외부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규제완화에 팔을 걷어붙이기 위해 규제완화 현장추진단을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음

□ 지경부는 3.14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주재로 6개 구역청, 전경련 등 유관단체, 외부 전문가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『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현장추진단』 발대식을 개최하였음

○ 이 자리에서 지경부는 규제발굴에서부터 대안검토,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규제개선 등 향후 추진절차에 대해 설명하고, 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5개의 실무검토반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으며,

○ 6개 구역청, 유관기관, 외부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에 공감을 표하고 추진단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음

□ 한편, 지식경제부는 작년 말부터 총 30여건에 달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금번 현장추진단 운영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고,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경우,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뿐 아니라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음

○ 일례로 외국병원·관광레저 사업 등 대형투자사업에 대해 사전심사제*가 도입되어 이와 관련된 투자가 실현되면,

* 사전심사제 : 대규모 설비투자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투자사업에 대해, 설비투자를 전제조건으로 허가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제도

- 외국병원은 600병상 규모의 투자유치를 가정했을 때 약 1만명의 일자리 창출 및 연간 1억불의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하고, 관광레저의 경우, 인천에서 진행중인 3건 프로젝트 유치를 가정하여 약 5만명 고용창출과 2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

○ 이밖에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*환지개발방식을 허용하면 2025년까지 약 1조4천억원 가량의 개발사업비 경감효과가 예상되는 등 규제완화로 인한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기대됨

* 환지개발방식 :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하나로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기존 토지의 권리를 개발 후 토지에 재분배 하는 방식

□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"평소 경제자유구역에 '경제'만 있고 '자유'는 없다는 일부의 평가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해 왔었다"고 하면서

○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제특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규제완화는 꼭 풀어야 할 숙제이며, 이번 기회에 '불필요한 규제는 뿌리 뽑겠다'는 각오로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음

○ 아울러, 금번은 개발·투자활성화 과제를 위주로 하되, 2차 추진단은 6개 구역 입주기업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한 규제개선을 중점 추진하는 등 앞으로 추진단 운영을 상설화하겠다고 밝힘

참고1 규제완화 현장추진단 발대식 개요

□ 개최개요

○ 목 적 : 『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현장추진단』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 및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 토의

○ 일시/장소 : 2012. 3. 14(수) 15:00~16:00, 기술표준원 2층대회의실

○ 참석자 : 총 30여명

- (경자단) **단장(주재)**, 각 팀장(실무검토반장), 실무검토반 간사(사무관)
- (구역청) 담당본부장 및 실무검토반원
- (전문가) 실무검토반 참여전문가
- (유관기관) 전국경제인연합회,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가

□ 논의 안건

① 『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현장추진단』 추진방안 (정책기획팀장)

②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 (전경련 규제개혁팀장)

□ 진행순서(안)

시간	일정	내용	비고
15:00~15:05	인사말씀	인사말씀 및 참석자 소개	경자단장
15:05~15:20	발제	-규제완화 현장추진단 추진방향 -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	정책기획팀장 전경련
15:20~15:55	토의	발표내용 및 주요검토과제 토의	참석자
15:55~16:00	마무리말씀	회의결과 정리 및 마무리 말씀	경자단장

참고2 경제자유구역 주요 규제개선 검토사항

분야	검토사항	비고(기대효과)
개발 활성화	○ **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** - 현재 4가지 자격요건 및 SPC설립에 대한 요건 완화를 검토	○ 개발투자활성화로 약 6천억의 투자효과 발생 추정
	○ **경제자유구역 개발절차 간소화** - 환경영향평가제도, 중앙부처 협의절차 간소화 등 검토	○ 행정력 낭비 예방 및 조기개발 유도 효과 발생
	○ **경제자유구역 환지개발방식 도입** - 기존 토지수용방식 개발과 병행하여, 필요에 따라 환지방식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검토	○ 2025년까지 약 1.4조원의 개발사업비 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
투자 유치 활성화	○ **경제자유구역내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** - 현행 15억원인 기준금액 완화 검토 및 제도적용범위 확대 검토	○ 인천의 경우, 동 제도 시행으로 4,300억원의 FDI유치 및 3천명 규모의 고용유발 효과 추정
	○ **외국의료기간 개설허가 前 사전심사제 도입** - 병원허가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 → 설립초기 단계에서 사전심의 절차를 도입하여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안 검토	○ 6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유치할 경우, - 투자효과(6천억원), 고용효과(1만명), 수입대체효과(연간1억불) 추정
	○ **관광레저(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포함)허가 '사전심사제' 도입** - 현재 호텔 등 설비투자가 선행되어야 카지노업 등 허가신청 가능 → 설비투자 前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투자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안 검토	○ 인천의 관련 3건* 프로젝트 유치시 - 고용효과(5만명), 생산유발효과(20조원), 부가가치창출(8조원) 추정 * 하늘도시, 미단시티, IBC-Ⅱ